

論述考查의 運營方向 세미나

金 宗 西
(서울大 教育學科)

세미나의 進行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로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集中시키고 열띤 討論을 거듭하게 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그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大學의 入試制度일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 입시제도는 內的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外的으로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무려 아홉 번에 걸친 變遷이 있었다. 이러한 변천 중에서 최근의 것은 금년도에 시행한 論述考查였다. 논술고사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에서 처음 채택한 제도이며 그 실시도 한번뿐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한다면 補充해야 할 허다한 問題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長期的으로 볼 때는 논술고사가 어떤 方向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摸索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韓國大學教育協會에서는 특히 大學人의 비상한 관심이 되어 있는 “大學入試制度 發展과 論述考查의 運營方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1986년 5월 30일 하오 2시부터 7시까지 서울 여의도 私學年金會館 2층 A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범위는 大學人으로 한정시켰는데 의외로 많은 대학인이 참가하였다. 이로 볼 때 이 세미나의 주제가 대학인의 지대한 관심거리임을 알 수가 있다. 즉 전국의 종합대

학 및 단과대학이 모두 111개교인데, 88.3%인 98개교에서 108명의 교수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이 교무처장, 교무과장 또는 論述考查 업무를 직접 담당한 교수들이었다.

세미나는 梨花女大 黃應淵 교수(教育心理學)의 “大學入試制度 發展과 論述考查의 運營方向”이라는 基調講演이 있는 후에 두 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계속되었다. 주제발표 I은 서울大 朴甲洙교수(國語學)의 “論述考查 出題에 관한 反省과 改善方案”이었으며, 이에 대한 論評은 忠南大의 李鍾昇 교수(교육학)가 하였고, 이어서 討論은 慶北大의 邊昌鎭 교수(교육학)와 永一高等學校의 洪章鶴 교사(국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주제 II는 “大入論述考查의 採點方案”을 高麗大의 朴道淳 교수(교육학)가 발표하였고, 논평은 西江大의 金烈圭 교수(국문학)가 하였으며, 이에 대한 討論은 서울大의 黃禎奎 교수(교육학)와 서울高等學校의 鄭明壽 교사(국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발표 및 토론이 있는 다음에 전체토론으로 이어졌으며 끝으로 필자(교육학)가 綜合 및 結論을 맡았다. 이렇게 보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 자가 총 10명인데, 이를 전공별로 보면 교육심리 분야 1명, 교육학 분야 5명, 국어·국문학 분야 4명으로 되어 있다.

세미나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 그대로



▲ 시종일관 진지한 세미나의 분위기에서 논술고사에 대한 대학인의 지대한 관심을 엿볼수 있다.

로 진지하였고 도중에 자리를 뜨는 참가자는 거의 볼 수 없었으며 이로써 이 주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다.

基調講演

梨花女大 黃應淵 교수의 “大學入試制度 發展과 論述考查의 운영 방향”이라는 기조강연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大學入試制度의 變遷과 그 性格

첫째, 우리나라 대학의 입시제도는 원칙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이른바 지속성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신입생 선발을 위한 大學入試制度 운영의 주도권이 大學으로부터 차츰 國家로 옮겨 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세월이 지남에 따라 대학입시의 고사과목은 증가되었고 出題方式도 주관식 논문형에서 객관식 선다형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2) 7·30 改革後의 大學入試制度의 問題點

첫째, 出題方式이 선별형 문항 형식 일변도이므로 高次的 精神能力의 평가를 위하여 大學入學 選拔考查로 미치되거나 혹은 추가되어야 한

다는 주장의 소리가 높다.

둘째, 高等學校 內申成績의 반영은 단시간에 걸쳐 실시하는 學力考查의 결점을 보완하고 高校 教育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高校 平準化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많다.

셋째, 新入生 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선발기능이 매계되고 대학의 自律性·獨立性이 무시되고 있다.

3) 論述考查의 概念과 特徵

論述考查에는 ① 교과내용 평가형 논술고사, ② 表現能力 평가형 논술고사, ③ 思考能力 평가형 논술고사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논술고사는 제 3형에 속한다. 이와 같은 논술고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大學, 高校 및 지원학생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4) 論述考查 實施方案의 模索

금년도에 시행한 논술고사는 그 매점에 있어서 극히 낮은 비율이었으며 문제의 형은 자료제시형으로 1문항이었고 反應은 1,000자 정도에서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論述考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술고사에서 평가하려는 목적이 不分明한 문제들이 많았으며 특히 여러 개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중 한 개를 지원자가 선택하여 쓰도록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출제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採點에 있어서는 誤差의 범위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채점자간에 채점방법과 기준에 관한 충분한 協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高等學校에서 ‘論述考查 教科目’과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論述考查 出題에 관한 반성과 개선방안

1) 主題發表 I

서울대 朴甲洙 교수가 발표한 “論述考查 出題에 관한 반성과 개선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論述考查의 出題原理와 實相

첫째, 分析力·構力·批判力·創意力과 같은 高次的 精神能力의 평가에 중점을 둔다는 목표는 99개 대학 중 66개 대학에서 ‘자료제시형’을 채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나, 이와는 달리 생활주변에서 常識的이고 一般的인 소재를 선정한 경우도 많았다.

둘째, 문항의 構造化와 制限性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는 양호하였으나 ‘종교와 인생’과 같이

方向性과 制限性이 모호한 문제도 많았다.

셋째, 具體적이고 명확한 지시가 포함된 論題를 제시해야 하나 論文 아닌 隨筆文에 적합한 것들도 많았다.

네째, 脫教科的, 汎教科的인 생활주변의 명이한 素材를 선정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特殊分野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다섯째, 論證式 論文型에 알맞지 않은 문제가 출제된 경우도 많았다.

(2) 論述考查 出題에 관한 反省과 改善方案

첫째, 表現과 思考를 아울러 평가하는 綜合的 能力評價의 출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教科內容 評價型的 論文試驗으로 지향점이 바람직하다.

셋째, 생활주변에서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一般的인 素材와 主題를 선정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네째, 反應의 自由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主辭를 構造化하고 제한하도록 할 일이다.

다섯째, 論題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指示가 포함되도록 한다.

여섯째, 方向性이나 制限性이 있는 資料題示型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論述考查는 作文考查로서 출제됨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차교수의 주장을 요약한 것인데 차교수가 이 밖에 특히 강조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이였다.

첫째, 논술고사는 脫教科的 성격이 아닌 教科知識을 바탕으로 하는 教科論述考查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大系列別로 출제되어야 한다.

둘째, 논술고사와 같은 미봉책에 의하여 大學入試制度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大學本考查가 부활됨이 바람직하다.

▼ 채점방안 설정의 전제로서, 논술고사의 내용은 특정 영역이나 교과 지식의 영향을 덜 받아야 한다(주제발표 II)



2) 論評

朴甲洙 교수의 主題發表에 대한 論評은 忠南大의 李鍾昇 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술고사는 作文考查로서 출제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贊同할 수 없다. 왜냐하면 作文은 論述文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논술고사에서 의도한 評價目的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둘째, 생활주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소재와 주제를 선정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主張에 대하여서도 찬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特殊한 소재나 주제가 高等精神能力을 측정하는 데 알맞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적당한 畧란도를 지닌 출제를 하고자 하면 人文·社會·法政·經商 등으로 구분하는 中系列別 出題가 바람직하다.

3) 討論

討論은 慶北大의 邊昌鎭 교수와 永一高等學校의 洪章鶴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邊昌鎭 교수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술고사는 그것을 作文考查로 출제하는 論文考查로 출제하든, 出題內容과 形式을 大學에 일임하여 대학의 선발권·自律性 伸長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채점의 容觀度, 信賴度, 實用度가 보장되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에 알맞는 출제를 해야 한다.

셋째, 出題內容과 形式의 개선은 논술고사 특점의 辨別力과 豫言力의 強化라는 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洪章鶴 교사는 高等學校의 現況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에서 개선점을 지적한 것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論題는 思考力을 요하는 論點이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命題를 드러내거나 暗示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論點이 파악될 수 있도록 지문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答案分量의 제한을 하는 경우는 論題도 제한되어야 한다.

넷째, 配點은 擴大되어야 한다.

다섯째, 배점의 우선 순위가 맞출법, 피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에 주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洪교사가 力說한 것은 논술고사는 敎科知識을 바탕으로 하는 小系列別 敎科論述考查로 하고, 實施 時期는 大學入學學力考查 실시 이전으로 할 것 등이었다.

4) 一般討論

지정된 토론자 이외의 參加者들에게 일반토론의 기회가 있었다. 이 토론에서 논의된 문제점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論述考查의 성격이 무엇이며 評價의 目的은 무엇인가.

둘째, 大學入學學力考查의 敎科目을 3~4개(國語, 英語, 數學, 國史)로 하고 나머지 敎科目들 중에서 대학이 2~3개 교과목을 지정하여 論述考查로 하는 方案이 검토되어야 한다.

大入論述考查의 採點方案

1) 主題發表 II

高麗大 朴道淳 교수의 “大入論述考查의 採點方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採點方案 設定에 있어서 논술고사는 特定領域이나 敎科의 지식의 영향을 덜 받아야 하고 主觀的으로 채점해야 하며 그 형태에는 자료 제시형과 단독과제형이 있음을 前題로 한다.

둘째, 채점의 一般原則으로는 ① 문제의 構造化, ② 明白한 採點基準, ③ 채점문항간 또는 基準間의 비중의 유사성, ④ 問題 또는 基準別 採點, ⑤ 複數採點, ⑥ 採點者의 事前訓練, ⑦ 문제의 變別력이 나타나도록 배점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채점방법의 종류로는 分析的 採點方法, 概觀的 採點方法, 評定-分類 採點方法, 點數配點方法 등이 있다.

넷째, 採點方案으로는 ① 採點基準과 模範答案의 작성, ② 採點者에 대한 事前訓練, ③ 同一科 수험자에 대한 同一採點組에 의한 채점 ④ 總體의 觀點에 의한 評定後 點數 配定法에 따르는 채점, ⑤ 3인 이상의 채점자 및 적절한 수의 採點組 등을 제안했다.

2) 論評

評論은 西江大 金烈圭 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論說文 出題 자체는 應試者의 主觀性과 創意性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採點은 最大限度의 客觀性과 公正性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二律背反性을 지닌 命題를 기초로 採點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작년도의 논술고사는 採點의 公正性이 우선권을 띤 나머지 出題가 制約되고 점수의 等差를 極少化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켰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한 採點改善方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수의 上向調整 및 응시자의 창의성과 주관성이 最大限 導出될 수 있는 방향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採點의 公正性·客觀性에 추가하여 迅速性과 效率性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組別評價는 1인에 의한 평가에 최대한 接近할 수 있도록 한다.

네째, 評價 採點要員의 확보 및 그 훈련을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밖에 金교수는 論說文에 관한 概念 再定立의 필요성을 力說하고 논술문도 분명히 作文의 일부라고 하던 作文考查의 必要性을 주장하였다.

4) 討 論

討論은 서울대의 黃禎奎 교수와 서울高等學校의 鄭明壽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먼저 黃교수의 討論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論述考查 採點에 있어서 ‘완벽한 客觀性’을 기대할 수 없다는 命題에 대한 利害集團의 共感帶 形成이 필요하다.

둘째, 논술고사의 妥當性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대학 및 大學群이 중심이 되어 論述考查에 관한 각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黃교수는 이 밖에 論述考查의 形式 및 方法을 대학에 일임함으로써 大學自律權을 伸長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즉 作文이든, 論文이든, 論述이든, 汎敎科의이든, 敎科的이든, 大系列別 出題이든, 小系列別 出題이든 대학에 一任해야 한다고 하였다.

鄭明壽 교사의 토론은 問題點과 改善方案의 두 측면이었으며, 문제점으로는 ① 配點의 下向調整은 論술고사의 기능을 弱化시켰다, ② 짧은 採點기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③ 採點기준을 문제지에 밝히지 않고 있다, ④ 수험생의 응답內容이 類似한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論述考查 전형 요강을 빨리 발표한 것 둘째, 기본 점수를 낮추고 개인간의 변별도를 높일 것

셋째, 문항에 採點기준과 배점을 밝힐 것

네째, 大學敎育의 전문성과 관련저위 출제할 것

다섯째, 採點기간이나 인원수를 늘이고 한 答案지를 3인 이상이 採點하도록 할 것

4) 一般討論

一般討論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論述考查를 作文考查로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

둘째, 配點을 文敎部에서 제시한 것보다 下向調整하고 있는 문제

이 밖에 採點 절차 및 方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각 대학에서는 신중을 신중을 期하였으며 主題發表 및 討論者들이 제안하고 있는 方法을 그대로 따랐거나 그 이상의 치밀성을 期함으로써 客觀性과 公正性 확보에 노력을 하였다는 결론이었다.

綜合 및 結論

세미나의 제일 마지막은 綜合 및 結論이었으며, 이 부분은 筆者가 맡았다. 이때 筆者 나름대로 느낀 점을 피력하였으며 그 요약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大學入試史上 최초로 시행한 論述考查는 일단 成功하였다고 본다.

基調講演, 主題發表, 論評, 討論, 一般討論에서 論술고사의 失敗를 지적하고 이의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新

聞紙上에서도 폐지론이 전연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단은 성공하였다고 브야드 무방할 것 같다.

둘째로 세미나의 개최 시기가 適切하였다.

금년에도 論述考査는 실시될 것이며 이렇게 되던 약간의 補完이 불가피하게 된다. 문교부에서 아직도 금년 논술고사에 관하여 尙강을 示達한 바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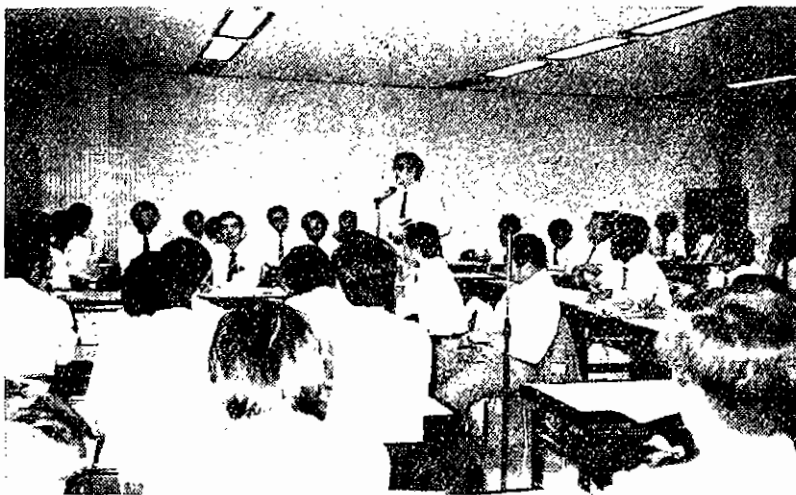
이에 앞서 이미 시행된 논술고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改善方案을 모색한 이번 세미나는 時宜에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째, 다만 이번 세미나가 논술고사를 좀더 巨視的인 觀點에서 대학입시제도와 關連하여 깊이 다루지 못하고 微視的인 補完方案만을 논의한 것은 미흡한 一面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論述考査 실무자들이 모인 세미나 같은 印象마저 있었다. 新入生의 선발전, 大學의 自律權 등과 關連하여 논술고사가 나아가갈 方向에 대해 論議함이 극히 적었고 그 대부분이 금년에 실시할 論述考査의 補完策에 關한 논의였다.

네째, 巨視的인 觀點에서 본 논술고사 改善方案으로 제시된 것은(論文에는 거의 없지만) 汎敎科·脫敎科的 性格의 논술고사에서 特定한 지식을 기초로 하는 敎科論述考査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하여서 논술고사는 大系列, 中系列 또는 小系列별로 출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

다섯째, 논술고사를 作文考査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서는 論爭이 있었다. 國語를 전공



▼ 발표자들은 대부분 논술고사 배점의 上向 調整을 주장하였고 일반토론에 있어서도 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교수나 교사는 한결같이 作文考査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전공이 다른 참가자들은 이에 反對하고 현재와 같이 論述考査가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理由는 논술고사는 作文考査의 일부이며 단일 作文考査가 되면 그 범위가 넓어져서 논술고사의 평가목적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여섯째, 논술고사 配點의 上向 調整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를 적극 支持하였으나 일부 참가자는 그 冒險性과 當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에 미추어 慎重論을 펴기도 하였다.

發表者들은 대부분이 배점의 上向 調整을 주장하였고 一般討論에 있어서도 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일부 참가자는 漸進的 改革의 필요와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다.

일곱째, 論述考査이든, 作文考査이든, 論文考査이든, 脫敎科論述考査이든, 敎科別 論述考査이든, 그 形式과 方法을 大學에 一任하여 대학별로 특색 있게 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異議를 제기하는 참가자가 없었다. *